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자아지각의 관계*

The Relationships of Mother-Child Attachment and
Children's Self-Perception

박 상 미**

Park, Sang Mi

이 영***

Lee, Young

ABSTRACT

The relationship of mother-child attachment and children's self-perception was assessed in 43 five-year-olds and their mothers. Attachment Q-set(Waters & Deane, 1985) was used to assess attachment security and the Puppet Interview(Cassidy, 1986) to assess global self-esteem. Data were analyzed by t-tests and Pearson's correlations. Attachment security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global self-esteem. Girls had more positive global self-esteem than boys.

* 본 논문은 1999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연구조교

***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I. 서론

Bowlby(1969, 1973)가 애착이론의 체계를 정립한 이후, 애착은 개인의 인지·사회·정서 등의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구인임이 증명되고 있다(Main, Kaplan, & Cassidy, 1985; Matas, Arend, & Sroufe, 1978). 또한 어린 시기에 형성된 애착은 그 영향이 전생애에 걸쳐 지속적이므로(Cicchetti, Cummings, Greenberg, & Marvin, 1990) 애착은 전생애적 발달 연구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Bowlby(1973)는 애착에 관련된 어머니와 아동의 상호작용과 아동의 주관적 경험으로서의 애착을 개념화하기 위해 표상 모델(representation model) 또는 내적 실행 모델(internal working models)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내적 실행 모델이란 아동이 자신을 포함한 세상의 본질, 성격, 행동에 관하여 형성하는 개념을 말한다. 즉, 애착에 관한 내적 실행 모델은 자신과 애착 대상자와의 관계에 대한 표상이며(Bowlby, 1973), 아동이 주어진 상황을 평가하고 행동을 계획하는데 영향을 준다.

Bowlby(1969)는 애착에 관한 내적 실행 모델을 설명하면서 자아에 관한 내적 실행 모델을 언급하였는데, 이 둘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강조하였다. 애착에 관한 내적 실행 모델이 안정적인 아동은 부모를 반응적이고 수용적인 대상으로 표상하게 되며, 동시에 자신이 그렇게 돌보아질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된다(Cassidy, 1988; Verschueren & Marcoen, 1999). 그러므로 어머니와 영아의 애착이 자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일찍이 Cooley(1902), Mead(1934) 등도 자아의 발달에 있어 사회적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 이후 많은 학자들이 사회적 상호작

용 중에서도 특히 주양육자와의 초기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보았다(Bretherton, 1988; Sroufe, 1983). 이러한 견해도 부모와 아동간 관계의 질적 측면인 애착이 아동의 자아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을 뒷받침 해준다.

애착과 자아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영아를 대상으로 하여 애착과 자기인식의 관계를 살펴보거나(Pipp, Easterbrooks, & Harmon, 1992; Schneider-Rosen & Chichetti, 1984), 청소년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애착에 관한 표상의 안정성과 자아에 관한 표상의 긍정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Salzman, 1996)가 많았다. 유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영아기에 측정한 애착과 유아기의 자아지각과의 관계를 살펴본 종단적 연구(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 Belsky, Rovine, & Taylor, 1984; Matas et al., 1978)가 있다.

유아의 애착과 자아지각의 동시적인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는 최근 들어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자아를 긍정적으로 지각한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이주리, 1996; Cassidy, 1988; Oppenheim, 1997; Verschueren, Marcoen, & Schoefs, 1996). 그러나 유효순(1996)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아지각이 애착 안정성과 관계가 없고 교사가 평정한 아동의 능력과 수용만이 애착 안정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애착과 자아지각의 관계가 최근에 이르러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이 시기 아동이 자신의 전반적인 가치평가를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 왔던 것과 관련이 있다. Harter와 Pike(1984)는 유아기 아동이 전반적인 자아

에 관한 평가를 하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에 능력과 수용에 대해 각각의 영역별로만 자아지각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심리적 이해에 대한 아동의 이해를 과소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견해(Main et al., 1985; Eder, 1990)에 따라, 자아가치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이 어린 시기부터 형성된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기초하여 자아가치에 대한 자아지각의 긍정적인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인형놀이 면접법(Puppet Interview; Cassidy, 1986) 등의 도구가 개발되었으며, 이 도구를 이용하여 애착과 자아지각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애착과 자아지각의 관계 연구에서 애착과 자아지각의 성차가 보고되기도 한다. Verschueren과 그의 동료들(1996)의 연구에서는 여아의 애착이 남아보다 안정적이었으며, 여아가 자신을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성에 따른 부모의 차별적 상호

작용으로 여아가 정서적으로 더 개방적인 것(Golombok & Fivush, 1994)과 관련하여 정서적 개방성이 애착과 자아지각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한다(Verschueren et al., 1996). 그러나 애착과 자아지각을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성차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Verschueren et al., 1996) 유아기 아동을 대상으로 애착과 자아지각의 관계를 연구함에 있어, 애착과 자아지각에서의 성차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기 아동을 대상으로 애착과 자아지각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이 시기 아동의 자아가치에 관한 자아지각이 어머니와 아동의 애착 안정성과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애착 안정성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둘째, 아동의 자아지각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셋째, 아동의 애착과 자아지각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이영·나유미·정지나(1999)의 연구에 참여했던 아동 중에서, 사회계층에 따른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중류층 아동만을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서울시내 중류층 지역에 위치한 유치원 4군데와 일산 신도시의 유치원 1군데에 다니는 만 5세의 원아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52개월에서 65개월의 아동 총 43명(남아 22명, 여아 21명)이었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대졸이상이 38명(88.4%), 전문대졸 1명(2.3%), 고졸 4명(9.4%)이었으며, 비

취업자가 86%였다.

2. 연구 도구

1) 애착 안정성

어머니와 아동의 애착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Waters(1987)의 애착 Q-set의 한국판(이영·박경자·나유미, 1997)을 사용하였다. 애착 Q-set은 가정에서 보이는 아동의 애착 관련 행동이 적혀 있는 90개의 카드로 구성되어 있다. 애착 Q-set 분류 방법은 카드를 읽고 아동의 특성과 가장 일치하는 행동의 카드는 9점에, 가장 일

치하지 않는 행동의 카드는 1점에 놓되, 각 점수에 10장의 카드가 놓이도록 분류한다. 아동의 애착 안정성 점수는 전문가들에 의해 분류된 한국판 준거점수를 이용하여, 준거 점수와 연구대상 아동에 대한 카드 분류 점수와의 상관계수를 통해 구한다.

2) 자아지각

아동의 자아지각에 관한 자아지각을 측정하기 위해 인형놀이 면접법(Puppet Interview; Cassidy, 1986)을 사용하였다. 인형놀이 면접법은 연구자가 손인형을 바라보면서 20개의 질문(예: '너는 ○○를 좋아하니?', '너는 ○○가 착한 아이라고 생각하니?')을 하고, 아동이 손인형의 역할을 맡아 질문에 답하는 식으로 하여 아동의 응답을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조사의 결과를 통해 아동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2개의 문항을 제외하고 18개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질문에 대한 아동의 대답은 타인의 평가를 지각하여 형성된 자아지각에 관한 자아지각이라고 본다. Cassidy(1986)의 인형놀이 면접 분석 방법에서는 면접의 결과를 두 가지 방법으로 분석하도록 되어 있다. 한 가지는 각 아동을 세 범주 중 한 범주로 분류하는 질적 분류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5점 척도로 평정하는 양적 방법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방법 중 세 집단으로 구분하는 방법은 애착의 안정성에 따라 안정/불안정 집단으로 나누어질 때 애착과의 분석에서 이용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5점 척도로 평정하는 양적 방법만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의 전반적인 특성(편안함, 정서적 개방성, 응답의 전반적인 긍정/부정적인 어조)을 토대로 1점(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누구나 있을 수 있는 결점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고 주장함)에서 5점(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작은 결점은 자유로이 인정함)으로 평정한다.

3. 연구 절차

1) 예비조사

인형놀이 면접법의 문항이 아동이 이해하기에 적절한지, 면접 절차상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또한 문항에 대한 응답에서 충분히 개인차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5세 아동 8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인형놀이 면접법의 문항 중 표현이 다소 모호하거나 어려운 것은 수정하였고, "너는 ○○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와 "○○가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라는 문항은 아동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외하였다. 그리고, 이 도구는 연구자가 인형에게 질문하고 아동이 인형의 역할을 맡아 대답을 해주는 식으로 면접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런 식의 대화에 아동이 금방 익숙해지지 않아서, 연구자도 인형을 들고 인형끼리 대화를 주고받는 식으로 면접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면접에 대한 아동의 응답은 녹음기로 녹음되었으며, 면접에 소요된 시간은 약 10분 정도였다.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자 외 아동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 한 명을 평정자로 선정하였다. 5세 아동 8명의 면접 결과를 가지고 두 명의 평정자가 각기 평정한 결과 87.5%의 일치도를 보였다.

2) 본 조사

애착 Q-set은 가정에서 조사자의 보조 하에 어머니가 분류하였다. Q-set을 분류하는데는 50

~60분 정도 소요되었다. 아동의 인형놀이 면접은 유치원을 방문하여 독립된 공간에서 개별 면접으로 실시하였다.

4. 자료분석

애착 Q-set 방법에 의한 애착 안정성 점수는

정규분포를 가정할 수 없으므로 Fisher's *r*-to-*z* 방법으로 전환한 점수를 통계분석에 이용하였다.

애착 안정성의 성차와 자아지각의 성차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애착과 자아지각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애착 안정성의 성차

아동의 성에 따른 애착 안정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성에 따라 애착 안정성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성에 따른 애착 안정성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남(n=22)		여(n=21)		전체(N=43)	
	M	SD	M	SD	M	SD
애착 안정성 점수 ^a	.43	.22	.54	.23	.49	.23

a fisher's *r*-to-*z*로 환산한 점수임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애착 안정성은 남아보다 여아의 평균이 높았으나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자아지각의 성차

아동의 성에 따른 자아지각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자아가치에 관한 자아지각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비교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성에 따른 자아가치에 관한 자아지각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남(n=22)		여(n=21)		<i>t</i>
	M	SD	M	SD	
자아가치에 관한 자아지각	2.82	1.14	3.47	1.16	-1.88 [†]

[†]*p* < .10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형놀이 면접법을 통해 알아본 자아가치에 관한 자아지각의 긍정적인 정도는 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여아가 남아보다 자아가치를 높게 지각하였다.

3. 애착과 자아지각의 관계

아동의 애착과 자아지각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애착 안정성 점수와 자아가치에 관한 자아지각 점수의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유의한 상관(*r* = .49, *p* < .01)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아동의 애착 안정성 점수는 인형놀이 면접법으로 측정된 자아가치에 관한 자아지각과 관계가 있었다. 즉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아동일수록 전반적인 자아가치를 높게 지각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문제에 따라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애착은 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애착 안정성이 성에 따른 차이보다 다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더 많이 받으므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영아기의 애착은 어머니의 민감성, 영아의 기질의 영향을 받는다(Belsky et al., 1984). 그리고 영아기 이후에는 동생의 출생, 가족 환경의 변화 등이 애착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Cicchetti et al., 1990) 본 연구에서 애착의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애착의 측정 도구와 관련지어 볼 수도 있다. 아동기 애착의 성차를 보고하였던 Verschueren과 그의 동료들(1996)의 연구에서는 가족 인형을 매개로 하여 어머니와의 애착을 나타낼 수 있는 상황에서 아동의 이야기에 기초하여 애착을 측정하는 이야기 완성 과제를 사용하였는데, 이 도구는 정서적으로 개방적일수록 애착을 안정적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정서 표현이 더 개방적인 여아(Golombok & Fivush, 1994)의 애착이 남아보다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된 반면, 정서 표현능력과는 관계가 없는 애착 Q-set 방법을 이용하여 애착을 측정한 본 연구에서는 애착의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다.

둘째, 자아지각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인형놀이 면접법의 결과, 남아보다 여아가 자아가치를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Verschueren과 그의 동료들(1996)의 연구와 일치하며, 방법론의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다. Cassidy(1986)는 건전한 발달을 이룬 사람은 방어적이지 않다는 Chodorkoff

(1954)의 견해에 기초하여,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완벽해 보이기 위하여 자신을 가장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인형놀이 면접법에서 자신의 결점을 쉽게 드러낼수록 자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성별에 따른 부모의 차별적 상호작용 때문에 아동기에 여아가 남아보다 정서에 관한 표현을 더 잘한다(Golombok & Fivush, 1994). 따라서, 인형놀이 면접법을 이용하여 측정한 자아표상이 남아보다 여아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을 수 있다.

셋째, 아동의 애착 안정성은 자아가치에 관한 자아지각과 상관이 있었다. 즉 어머니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아동일수록 자아가치에 관한 자아지각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아동이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아동에 비해 자신을 긍정적으로 지각하였다는 결과를 보고한 선행연구들(이주리, 1996; Cassidy, 1988; Oppenheim, 1997; Verschueren & Marcoen, 1999; Verschueren et al., 1996)의 결과와 일치하지만, 아동의 애착 안정성이 자아지각과 관계가 없었던 유효순(1996)의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유효순(1996)의 연구의 대상 연령이 본 연구와 다르고, 자아지각의 측정 도구도 달랐으므로 이 결과를 직접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자신과 양육자의 관계에 대한 내적 실행 모델이 자아에 대한 내적 실행 모델과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Bowlby의 내적 실행 모델 이론을 지지해 주는 결과이다. Bowlby에 따르면 애착에 관한 내적 실행 모델은 아동이 보내는 신호에 부모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며 적절하게 대처하였는가, 필요할 때 위안을 주었는가, 그리고 얼마나 아동을 애정적으로 수용하였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므로 애착에 관한 내적 실행 모델이 안정적으로 형성된 아동은 자신에게 결점이 있더라도 어머니로부터 수용되는 경험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아동은 자신이 수용될 가치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아가치를 긍정적으로 지각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결과를 통해 결론을 내리면, 어머니와 아동의 애착 안정성은 자아가치에 관한 자아지각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서울과 일산에 있는 유치원을 임의로 선택하였으므로 본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애착과 자아지각 간의 관계를 밝혔으나 애착과 자아지각 간의 인과성을 밝혀내지는 못하였다. 아동의 자아지각이 부정적이기 때

문에 어머니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Cassidy, 1990) 아동의 애착이 자아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혹은 아동기까지 형성된 자아지각이 어머니와 아동의 관계에 영향을 미쳐 애착 안정성에 반영된 것인지를 인과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아지각과 관련하여 어머니와 아동의 애착 관계만을 조사하였으므로, 자아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타인과의 상호작용 중 이 시기 아동에게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아버지 또는 또래 등과의 상호작용을 동시에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상과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내적 실행 모델에 기초하여 애착과 자아지각의 관계를 살펴보고, 애착이나 자아지각 연구에서 비교적 적게 다루어지고 있는 유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점, 그리고 국내최초로 자아가치에 관한 자아지각을 측정하는 인형놀이 면접법을 사용했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겠다.

참 고 문 헌

- 나유미 (1997). 한국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행동 특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유효순 (1996). 애착의 안정도와 유아의 자아지각.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9(1), 110-120.
- 이 영 · 나유미 · 정지나 (1999). 우리나라 유아의 양육환경과 발달에 관한 생태학적 연구. 미간행 연구보고서.
- 이 영 · 박경자 · 나유미 (1997). 애착 Q-set의 국내 준거 개발 연구. 아동학회지, 18(2), 131-148.
- 이은혜 · 최혜영 · 김미혜 (1990). 아동의 사회적 능력 성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유치원용 및 국민학교 1, 2학년용 척도.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논집, 4, 175-189.
- 이주리 (1996). 유아의 모자간 애착과 역량지각. 대 한가정관리학회지, 14(1), 177-185.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Hillsdale: Erlbaum.
- Arend, A., Gove, F. L., & Sroufe, L. A. (1979). Continuity of individual adaptation from infancy to kindergarten: A predictive study of ego-resiliency and curiosity in preschoolers. *Child Development*, 50, 950-959.
- Belsky, J., Rovine, M., & Taylor, D. G. (1984). The Pennsylvania infant and family development project: 3. The origins of individual differences

- in infant-mother attachment: Maternal and infant contributions. *Child Development*, 55, 706-717.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 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 Vol. 2. Separation*. New York: Basic Books.
- Bretherton, I. (1988). Open communication and internal working models: The social self as internal working model. In R. A. Thompson. (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Socio-emotional Development*.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Cassidy, J. (1986). *Attachment and the self at age six*.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Virginia.
- Cassidy, J. (1988). Child-mother attachment and the self in six-year-olds. *Child Development*, 59, 121-134.
- Cassidy, J. (1990).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in the study of attachment and the self in young children. In M. T. Greenberg, D. Cicchetti, & E. M. Cummings. (Eds.),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hodoroff, B. (1954). Self-perception, perceptual defense, and adjustment.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9, 508-512.
- Cicchetti, D., Cummings, E. M., Greenberg, M. T., & Marvin, R. S. (1990). An organizational perspective on attachment beyond infancy. In M. T. Greenberg, D. Cicchetti, & E. M. Cummings. (Eds.),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ohn, D. A. (1990). Child-mother attachment of six-year-olds and social competence at school. *Child Development*, 61, 152-162.
- Cooley, C. (1902). *Human Nature and the Social Order*. New York: Scribner's.
- Eder, R. (1990). Uncovering young children's psychological selves: individual and developmental differences. *Child Development*, 61, 849-863.
- Golombok, S., & Fivush, R. (1994). *Gender Develop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rter, S., & Pike, R. (1984). The pictorial scale of perceived competence and social acceptance for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55, 1969-1982.
- Main, M., Kaplan, N., & Cassidy, J. (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In I. Bretherton & E. Waters (Eds.), *Growing points in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66-104.
- Matas, L., Arend, R. A., & Sroufe, L. A. (1978). Continuity of adaption in the second year: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attachment and later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49, 547-556.
- Mead, G. (1934).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Oppenheim, D. (1997). The attachment doll-play interview for preschooler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 and Development*, 20(4), 681-697.
- Perderson, D. R., & Moran, G. (1995). A categorical description of infant-mother relationships in the home and its relation to Q-sort measures of infant-mother interaction. In E. Waters, B. E. Vaughn, G. Posada, & K. Kondo-Ikemura. (Eds.), *Caregiving, cultural, and cognitive perspectives on secure-base behavior and working models: New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60(2-3), 111-131.
- Pipp, S., Easterbrooks, M. A., & Harmon, R. J. (1992). The relation between attachment and knowledge of self and mother in one-to three-year-old infants. *Child Development*, 63, 738-

- 750.
- Salzman, J. P. (1996). Primary attachment in female adolescents: Association with depression, self-esteem, and maternal identification. *Psychological Abstract*, 84, 1516.
- Schneider-Rosen, K. & Cicchetti, D. (1984). The relationship between affect and cognition in maltreated infants: Quality of attachment and the development of visual self-recognition. *Child Development*, 55, 648-658.
- Sroufe, L. A. (1983). Infant-caregiver attachment and patterns of adaptation in preschool: The roots of maladaptation and competence. In M. Perlmutter. (Ed.), *Development and policy concerning children with special needs. The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Vol. 16)*. Hillsdale; Lawrence Erlbaum.
- Verschueren, K., & Marcoen, A. (1999). Representation of self and social competence in kindergarteners: Differential and combined effects of attachment to mother and to father. *Child Development*, 70 (1), 183-201
- Verschueren, K., Marcoen, A., & Schoefs, V. (1996). The internal working model of the self, attachment, and competence in five-year-olds. *Child Development*, 67, 2493-2511.
- Waters, E., & Deane, K. E. (1985). Defining and assess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attachment relationships: Q-metrology and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infancy and early childhood. In I. Bretherton & E. Waters (Eds.), *Growing points in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41-65.
- Zarbatbany, L., Hartmann, D. P., Gelfand, D. M., & Vinciguerra, P. (1985). Gender differences in altruistic reputation: Are they artifactual? *Developmental Psychology*, 21, 97-101.